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33

# 부처님 위신력은 ‘불가사의’

**[원문]**  
 양류초두감로쇄(楊柳初頭甘露澗)  
 연화향리벽파한(蓮華香裏碧波寒)  
 칠보지중표옥자(七寶池中漂玉子)  
 구룡구리옥금산(九龍口裡浴金仙)  
 -대승사 대웅전

**[번역]**  
 버들로 머리를 감고 감로를 뿌리네  
 연꽃 향기 속에 푸른 파도가 차갑도다.  
 칠보 연못 속에 옥동자를 띄우고  
 아홉 용의 입이 금빛신선의 몸을  
 깨끗하게 닦도다.

**[산해(禪解)]**  
 요즘 내가 승가에 몸담고 있으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있다. 일전에 불교TV 회장 성우 스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나온 말이 바로 스님들의 노후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1980년대 초 성우 스님은 홀로 파계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던 한 노스님의 병이 위중한 것을 알고도 진료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을 회고했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상황이 그대로라는 말씀이었다.

정부도 IMF 이후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 최저 생계비를 밑도는 사람에게 소득과 생계비의 차액을 보조해 주어 큰 보탬이 되게 만들었다. 하물며, 평생을 승가에서 보낸 노스님들의 노후복지가 되지 않고 있으니 마음이 아프다.

일전에 ‘불교미래사회연구소’에서는 “승려노후복지가 안 되면 스님들은 사라지고 사찰 건물만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불교발전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의미심장한 분석을 내놓은 적이 있다. 현재의 조계종 승려 인원 중 세남 50대 이상이 45%를 넘어 서고 있고 급속도로 승가도 고령화로 접어들고 있으며 반대로 30대 이하는 19.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 있어 불교지도자들이 최선책으로 내놓아야 하는 게 바로 ‘승려노후 복지 대책’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평생 노스님들은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오면서 ‘물질과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도 없다. 만약, 이러한 고령화가 지속된다면 이후 어쩌면 한국 사찰은 엉망이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더욱이 이 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려 65.4%의 스님들이 앞으로의 노후 생활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가자의 노후를 위해 정부는 무대책일 수밖에 없으며 종교 자체의 복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욱이 승가는 일미회합의 공동체 조직이다. 궁극적으로 스님들이 수행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는 노후 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불교나 천주교 등 다른 교단에서는 성직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조계종은 건강 검진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연금공단의 한 간부는 종단에서 전액 지원이 힘들다면 일부라도 의료비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한국불교 종단의 복지를 단적으로 지적한 사례임이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불교 인재 양상이다. 30대 이하 출가자가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불교의 미래가 암담하다. 일찍이 인도의 불교를 정착시켰던 아쇼카 왕은 기원전 2-3세기에 인도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룬 인물이다. 수십 명의 형제와 500여명의 신하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뒤 통일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전쟁에서 죽인 수십만 명의 피가 강물을 이루어 흐르는 것을 보고 참회해 불교에 귀의한 뒤 동돌병 원까지 만들 정도로 인간과 모든 생명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을 제도로 정착시켰다.

오늘의 주련여행은 사불산 대승사이다. 대한불교

로 옮겨왔다. 후에 부석사에서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대승사는 반환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였고, 1876년 대승사가 부석사의 조사전 수리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일단락되었다고 한다.

조선 후기의 목각탱은 예전 용문사와 상주 남장사 등에 남아 있다. 목각탱의 조성지는 모두 경상 북도에 한정되어있고 조선 후기 불교문화의 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대웅전 뒤쪽으로 삼성각, 자유훈고 편안한 느낌의 응진전, 조금 아래 단청이 퇴색되어 고고함을 느끼게 하는 극락전과 명부전, 그리고 대승선원이 있다. 대웅전 앞엔 탑이나 석등은 없다. 그러나 2기의 봉로대와 탑스럽게 가운 나무와 조화를 이룬다

이 절에는 대승사목각량부(木刻幢) 관계문서(4장)와 사적비(寺跡碑) 및 아미타불상에서 나온 <금자화엄경(金字華嚴經)>(7권), 불사리 1과(願) 등이 있다. 부석암자로 (반아암(般若庵)·묘적암(妙寂庵)·상적암(常寂庵) 등이 있는데, 특히 반아암은 기화(己亥)가 <금강반야경오가해설의(金剛般若經五家解說義)>(1415)를 지은 곳으로 유명하다. 대웅전의 주련 내용은 ‘일체만물로 합일된 부처님법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양류초두감로쇄 연화향리벽파한: 버들로 머리를 감고 감로를 뿌린 연꽃 향기 속에 푸른 파도가 차갑도다.’

## 버들 감로 옥동자 구룡 등으로 불법의 신성함 설명

## 일체만물로 합일된 법의 실상 은유적 표현 돋보여

조계종 8교구 본사인 직지사(直指寺)의 말사이다. 산마루에는 사면(四面)석불상이 있는데 <삼국유사> ‘사불산조’에 587년(신라 진평왕9) 커다란 비단 보자기에 싸인 사면석불이 공덕봉(功德峰) 중턱에 떨어졌는데, 사면에 불상이 새겨진 사불암이었다고 한다. 왕이 이 소문을 듣고 그곳에 와서 예배하고 절을 짓게 하고 ‘대승사’라고 사액(賜額)하였다. 망명 비구(亡名比丘)에게 사면석불의 공양을 올리게 하였고, 망명 비구가 죽고 난 뒤 무덤에서 1쌍의 연꽃이 피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뒤 산 이름을 사불산 또는 역탄산(逸德山)이라 하였다.

절로 들어서서 마당 입구에는 늙은 나무가 양쪽으로 서 있어 마치 대문처럼 보이는데 왼쪽으로 조선 후기에 세워진 삼층석탑이 있다. 대웅전은 웅마루 처마의 물고기를 물고 승천하는 용, 꽃 장삼의 모습이 매우 아름다운 건물이다. 안으로 들어가면 정상이 모이던 수미단과 만나게 되고, 천장엔 단색의 한지로 만든 연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대웅전 목각후불탱은 남아 있는 유례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크고, 걸작으로 이름난 조각이다. 조선후기에 조성한 아름답고 섬세한 목제의 후불탱으로, 그 관계 문서 등과 함께 보물 제 575호로 지정되었다. 본래 영주 부석사(浮石寺)에 봉안되어 있던 것을 1869년(고종 6) 무렵 대승사

한국 사찰주련들을 읽어 보면 언뜻, 한편의 뛰어난 한시를 보는 것 같지만 이 속에는 뛰어난 선문(禪文)이 깃들어 있다. 대개 대자대비의 관세음보살이 양류관음(楊柳觀音)으로 현신할 때 오른손에 버들가지를 쥔 모습으로 나타나는 데 불교의 버들은 매우 상징적이다. 즉, 부처님 법의 향기는 버들로 머리를 감을 만큼 많은 양의 감로수가 극치를 이루고 있으며 붉은 연꽃향기 속에 일렁이는 푸른 파도가 차가운 정도로 넓고 깊다는 뜻이다.

‘칠보지중표옥자 구룡구리옥금산: 칠보 연못 속에 옥동자를 띄우고 아홉 용의 입이 금빛 신선의 몸을 깨끗하게 닦도다.’

금선은 부처님을 가리킨다. 보석으로 가득찬 연못 속에 옥동자를 띄우고 구룡이 여의주를 가진 입으로 부처님의 몸을 닦는 모습은 바로 신성한 아홉 마리의 용이 부처님을 극진하게 모시고 있음을 뜻한다. 바로 불가사의한 부처님 위신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내용이다. 즉, 부처님의 법을 설화를 통해 매우 현실적으로 인식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지극한 부처님의 법열을 내포한다. 말하자면 대승사 대웅전의 주련 속에는 절대적인 부처님의 위엄을 버들과 감로, 옥동자, 구룡을 통해 그 신성함의 극치를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33

# 업을 쉬고 정신을 길러라

**[원문]**  
 若有此事 即是成道之因 唯自知 不可向人說. 或靜園林中 行住坐臥 眼見光明 或大小 莫與人說 亦不得取 亦是自性光明. 或夜靜暗中 行住坐臥 眼見光明 與晝無異 不得怪 是自心欲明顯. 或夜夢中 見星月分明 亦自心諸緣欲息 亦不得向人說. 夢若昏昏 猶如陰暗中行 亦是自心煩惱障重 亦自知. 若見本性 不用讀經念佛. 廣學多知無益 神識轉昏. 設教只爲標心. 若識心 何用看教. 若從凡入聖 即須息業養神隨分過日. 若多煩惱 令性轉 與道相違. 自無益. 聖人於生死中自在 出沒隱顯不定. 一切業拘他 不得 聖人破邪魔.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부처를 이루는 씨앗이 되리니 혼자서만 알고 있지 남에게는 말하지 말지니라. 혹 요한 숲 속에서 거닐고 머무르고 앉고 눕다가 크고 작은 광명이 보이더라도 남에게 말하거나 집착하지 말지니라. 이것도 자기 성품의 광명이니라. 혹 어두운 밤중에 행주좌와(모든 일상적인 행동) 하다가 대낮같은 광명이 보이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지니라. 모두 자기의 마음이 밝아져서 가는 것이니라. 혹 꿈속에서 벌이나 달이 분명하게 보이면 자기 마음의 온갖 연이 쉬려는 것이니, 역시 남에게 말하지 말지니라. 꿈속이 어두워 캄캄한 곳을 다니는 것 같으면 자기의 마음이 번뇌의 장벽으로 무겁다는 것이니, 스스로 알아야 하느니라. 만일 본성을 보게 되면 경을 읽거나 염불을 할 필요가 없느니라. 두루 배우고 많이 안다고 해도 별 이익이 없으며, 의식만 오히려 어두워지느니라. 가르침을 만들어둔 것은 마음을 가리켜 설명하고자 한 것이니, 마음을 설명할 면 경을 볼 필요가 어디에 있겠느냐. 만약 범부가 성인의 경지에 들고자 하면 업을 쉬고 정신을 길러서 분수에 맞게 세월을 보내야 하느니라. 성을 자주 내거나 기뻐하는 것이 많으면 도(道)에 어긋날 뿐 아니라 스스로를 파는 것이라 아무런 이익이 없느니라. 성인은 생사 가운데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숨거나 나타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일체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하며, 능히 사탄 마구니들을 깨뜨리느니라.”

**[해설]**  
 어떤 보살님이 “정진하는 중에 환영이 보이는데, 왜 보일까요? 환영이 안보여야 깨칠 수가 있는데 왜 환영이 보일까요?” 라는 질문을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정진을 하다 보면 알아지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 공부해 잘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계속 정진하

십시오.” 공부를 많이 해서 식(識)이 드러나면 미래의 일까지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천년 전이나 천년 후나 그대로이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영에 도달하려기 말고 남에게 말하거나 집착하지 말라고 달마 스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자기의 성품의 광명이니라. 혹 어두운 밤중에 행주좌와(行住坐臥) 하다가 대낮 같은 광명이 보이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지니라.”

걸어다니거나, 멈춰 서있거나, 앉아있거나, 누워 있거나 간에 한 생각 놓지 않는 그런 수행 가운데 광명이 혹은 나타나더라도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경계입니다. 보살님들도 수행하는 중에 이런 경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꿈속에서 벌이나 달이 분명하게 보이면 자기 마음의 온갖 연(緣)이 쉬려는 것이니 역시 남에게 말하지 말지니라.”

벌이나 달이 보이는 것은 우리 불성이 맑아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전생의 업이 녹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불성이 드러나서 성품을 보게 되면, 경을 읽거나 염불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오랜 수행을 통해서 업이 맑아지고 밝아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 범부가 성인의 경지에 들고자 하면 업(業)을 쉬고 정신을 길러서 분수에 맞게 세월을 보내야 하느니라.”

경전의 가르침은 우주의 근본 실상, 본래 자리를 알려 주는 겁니다. 수행을 통해서 깨닫기 위한 길을 알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알면 경을 볼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경이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수에 맞게 세월을 보내야 한다’는 말씀은 이런 저런 바쁘다는 핑계까지 있지만 사실 다가오는 죽음이 더 바쁘게도, 할 일은 미룰 수가 있지만, 죽음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성인은 생사 가운데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숨거나 나타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일체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하며, 능히 사탄 마구니들을 깨뜨리느니라.”

너무 성을 내거나 즐거움에 빠져도 도(道)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도를 깨쳐 불성의 광명체가 드러나 안과 밖이 없는 사람들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자기 몸을 마음대로 나탈 수가 있습니다. 불성자리, 광명체가 우주와 하나가 된 경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경지에 마음대로 몸을 나탈 수가 있고 결립이 없다는 얘깁니다.

■ 청주 해은사 주지



‘갈대잎을 탄 달마(蘆葉塗摩)’.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마음공부는 마음을 비우는 것. 그때 맑음이 온다. 맑음은 법신이다. 여기, 빙의령의 소멸과 카르마를 녹이는 천기누설의 비법, 관음(觀音)수행법을 공개한다.

법신(法身)은 순백의 맑음. 기(氣)는 법력이 아닌 에너지일 뿐이다. 생각을 작게 하는 것은 일심법의 핵심. 하지만 무상정등정각은 무심만이 얻을 수 있다. 숨이 배꼽근처에서 멈춘다

김성갑 지음 / 신국판 / 336쪽 / 정가 12,000원

김성갑 지음 / 신국판 / 288쪽 / 정가 12,000원

**육음이 보인다**  
 교총 지음/4x6배판/양장본/7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이계 풍수다**  
 신국판/성재권 지음/15,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x6배판/이선일, 전호일 공저/25,000원

**신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송월스님 지음/50,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5,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신한은행 110-012-066080 예금주(소광호)

##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해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글쓴이: 해천법사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주는가? 하는가?
- ④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수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계의 상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망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기 또는 명망타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당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모읍 문현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